

2019년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요 약 문

1.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와 효율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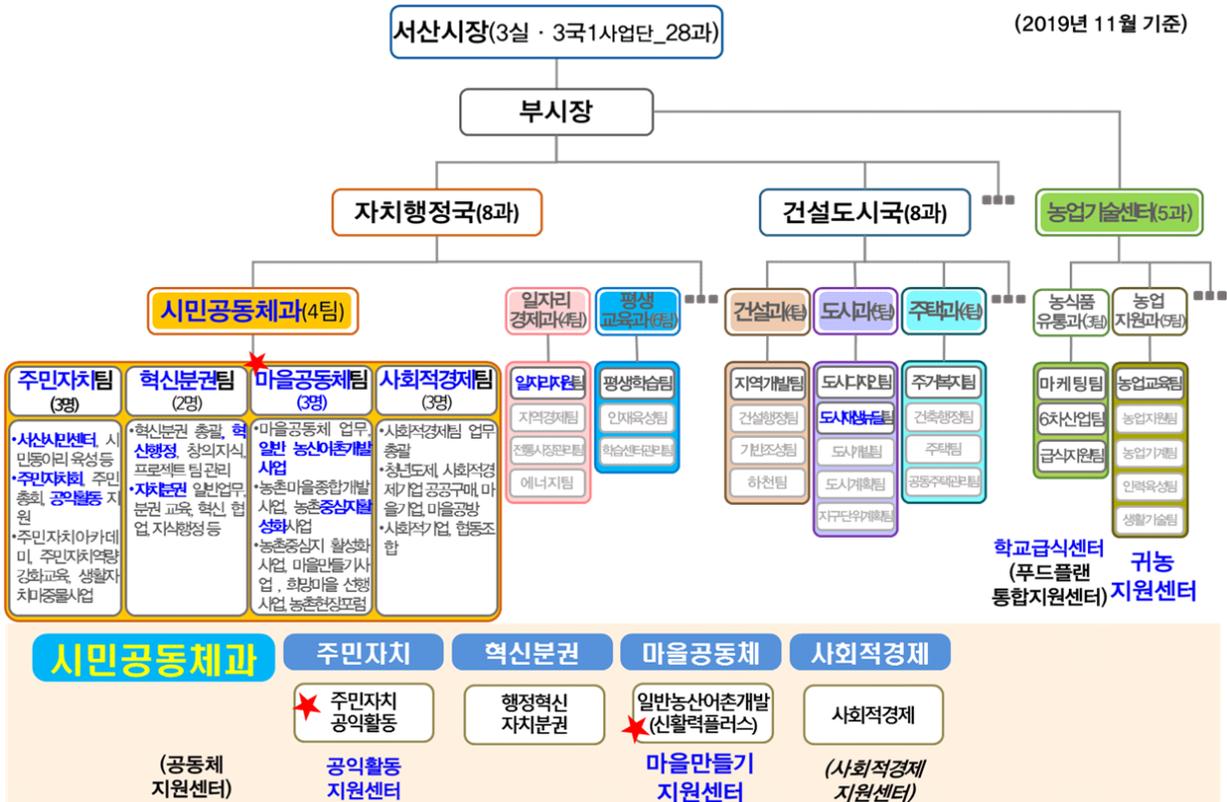
1)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과 융복합 강화 방향

- 서산시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부서는 시민공동체와 마을공동체팀이 담당하고 있음. 2019년 1월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공동체과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와 분권, 농촌마을, 사회적경제 등이 한 부서로 편재되면서 정책 융복합의 가능성이 높아짐([그림 1] 참고)
- 단,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분야의 협력체계 구성에 중점을 두면서 인력 충원 없이 많은 업무가 한 팀에 집중되어 있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음. 현재 시민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심의 주요 하드웨어 업무와 중간지원조직 사업을 담당하는 총괄·조정 부서 역할을 수행중임
- 서산시는 중간지원조직 공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이 시급함.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2018.4.20.)되었으나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근거가 빠져있어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담당 부서 사이의 협력 의무가 미약하다 할 수 있음

2) 평가와 대안 모색 : 행정지원체계 정비 방향

- 서산시의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조직 및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1) 농촌 마을만들기 전담 팀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 (2) 관련 행정 사업의 강력한 업무협조체계 구축, (3) 민간 전문가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전문직위 제도 적극 도입 등 순환보직제 단점을 극복하고, 또 향후 업무량 증가에 대비할 것 등을 제안함
- 행정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은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간의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함. 농촌 마을의 객관적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리더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 향후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 및 충남도의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맞추어 서산시 실정에 맞는 소액 프로그램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제안함. 농촌 마을만들기 행정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계속 신규 사업이 제시되며 재정분권으로 자치단체의 독자적

인 농촌마을정책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와 확대 운영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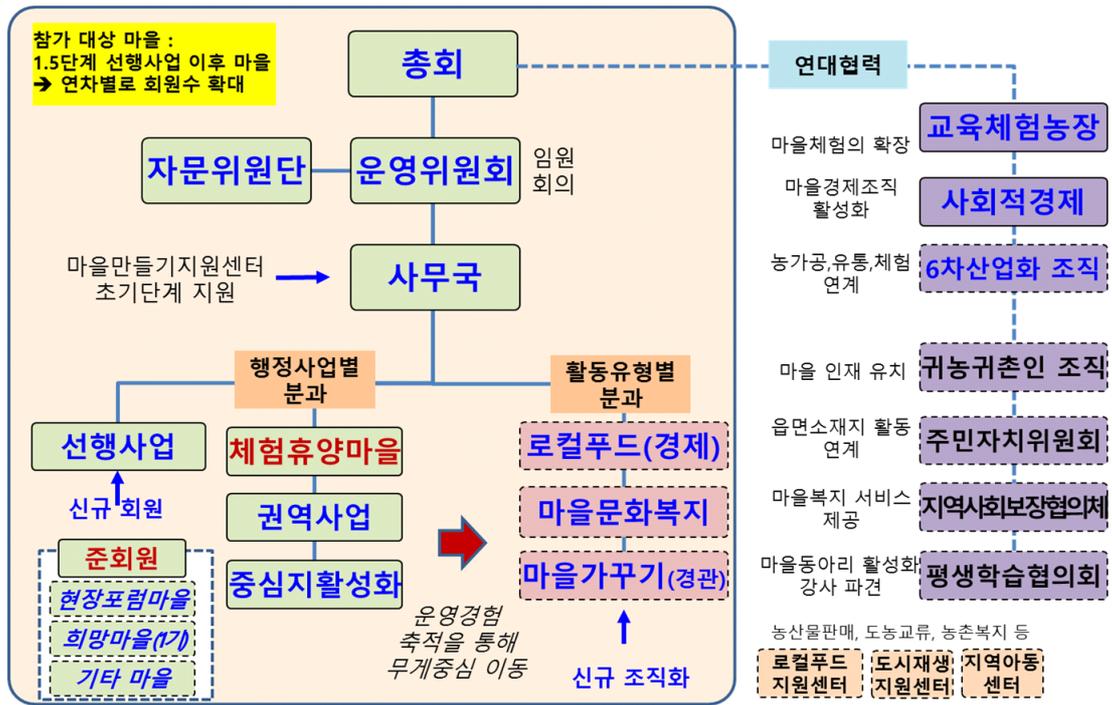


[그림 1] 서산시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의 총괄·조정 부서 현황

2. 마을만들기 당사자 협의체 설립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방향

- 서산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핵심적인 당면과제는 당사자 협의체로서 마을 위원장들만의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서산시는 마을만들기 협의체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 주도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임
- 개별 당사자 협의체가 발전해야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나 법인 설립도 원활할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개별 당사자 협의체 설립이 서산시의 가장 큰 핵심 당면과제라고 제안할 수 있음
- 당사자 협의체 구성영역으로 농촌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형 마을만들기 등의 영역이 협력·연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에 대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합의 도출해야 함([그림 2] 참고)
- 제2기 마을대학 개최를 통해 (가칭)서산시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의 설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서산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준비위원회의

조직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형 마을 조직과 농촌 마을 사이의 협력방안을 모색



[그림 2] 서산시 (농촌)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조직체계(제안)

3. 마을만들기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향 : 조례와 중간지원조직

1)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현황과 향후 방향

- 서산시는 2018년 4월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본 연구에서는 향후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안 검토하고, 타 지역 선진지 사례와 충남도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서산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함
-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공익활동(시민운동), 도시재생 등 관련 영역간의 강력한 연대 및 협력 방안이 필요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조례가 필요함. 특히 마을만들기와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산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방향([그림 3] 참고)

- 서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019년 6월에 이미 행정직영 센터로 출발하였으며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임. 인력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2명(기간제 근로자)이 채용되었으며, 향후 센터장 혹은 사무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함

- 사무실 공간은 1단계로 시청의 시민공동체과 공간을 활용하여 행정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하고, 2단계로 2020년 상반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구, 충남은행)에 입주할 것을 제안함
- 행정직영센터의 향후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집중학습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는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 이 과정에서 행정직영 센터의 상근자들이 실무를 준비하고, 당사자로서 공동학습 과정을 주도하며, 향후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면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서산시의 경우 시민공동체과 소관의 중간지원조직 업무는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 둘 중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임. 2020년 2월까지 공동학습 성과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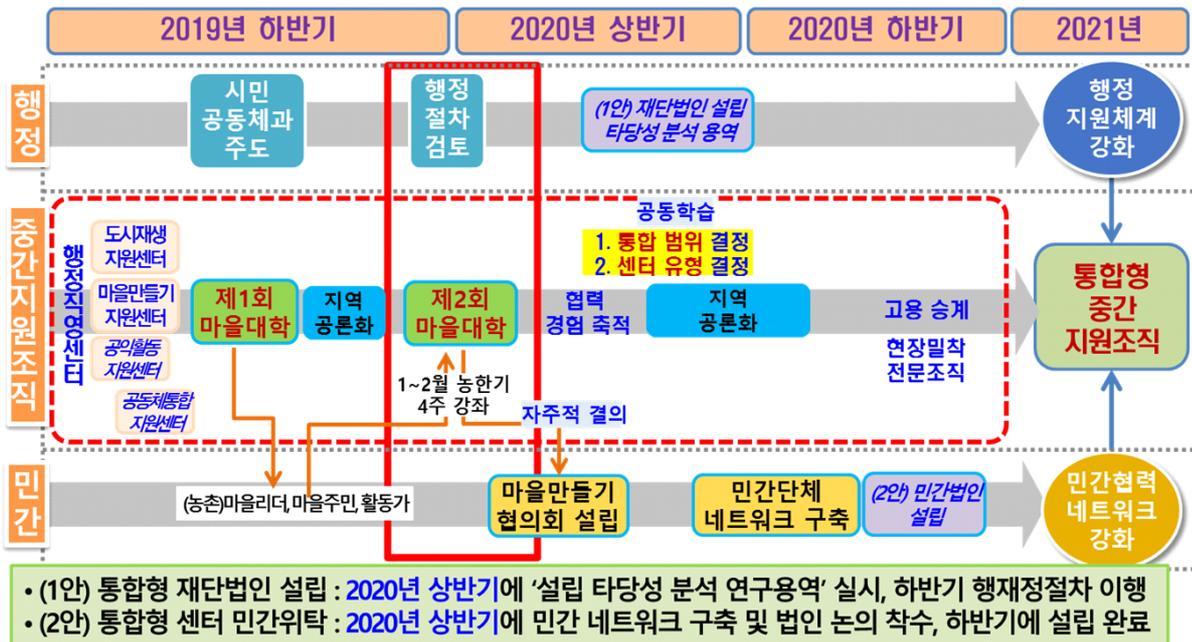
[그림 3] 서산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안 : 조직과 업무 분장

4. 종합평가와 향후 방향([그림 4] 참고)

- 서산시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14개 시·군 공동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1) 지역사회 지속적 공감대 구축, (2) 농촌 마을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의 중요성 인식, (3)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운영 경험 축적 등을 제안함

- 당면 과제 및 주요 일정을 연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서산시 실정상 중간지원조직 수탁·운영을 위한 민간법인 설립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0년 상반기는 제2회 마을대학 운영을 통해 리더 발굴 및 마을만들기(위원장)협의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
 - 2020년 1~2월 집중적인 공동학습으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는 ‘지역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 범위와 중간지원조직 경로 결정
 - 제3회 마을대학을 통해 마을만들기 민간네트워크 구축 관련 공동학습 진행
-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제안함
 -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 참여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만들기 관련 당사자 협의체 설립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마을 지원 소액 신규 공모사업으로 경관개선사업(우리 마을 가꾸기) 도입
 - ‘가칭’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등



[그림 4] 서산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위한 향후 일정